탱고, 새로운 생명을 얻다

제 2의 르네상스 맞이한 탱고와 세계 민속음악

장 일 범 · 음악평론가

최근 클래식 음악계의 트렌드 중 하나는 '월드 뮤직'이라 불리는 세계의 민속 · 종족 음악과 그것이 현대적으로 변용된 음악 장르의 적극적 침투를 들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 남미 음악, 그 중에서도 남미 브라질의 보사노바와 쇼루 · 아르헨티나 탱고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앞을 다투어 도전하며 즐겨 연주하는 장르가 되었다.

가장 많은 연주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탱고다. 1960~70년대 록큰롤에 밀려 아르헨티나에서도 흘러간 음악 취급을 받으면서 쓸쓸히 퇴장할 뻔했던 1870년대산 탱고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나디아 불랑제에게 클래식 음악 작곡을 공부했던 탱고 작곡가이자 반도네온 주자인 아스토르 피아졸라에 의해 재즈와 클래식적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탱고(Nuevo Tango)로 변모하면서 세련된 현대적 감각을 갖춘 세계인들의 현재적 예술로 탈바꿈했다. 무엇보다 '일어서서 춤추는 음악'에서 '앉아서 듣는 감상용 음악'으로 탱고의 개념을 바꾸어 놓은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 전통에 파격을 준 것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탱고를 연주하지 않는 연주자는 마치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연주자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말이다. 실제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은 그가 타계한 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인 양 지평을 확장시켜 가며 지구촌 곳곳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기돈 크레머의 대담한 발상 돋보여

피아졸라의 탱고를 클래식계에 알린 첫 주자로는 첼리스트 요요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춤 · 영화 · 아이스댄싱 · 가부키 등과 접목시켜 보기도 하고, 피들 연주자 마크 오코너 등과 애팔래치아 산맥의 음악을 실험하고 실크로드 국가들의 음악을 탐구하면서 음악적 방랑을 하고 있는 요요마는 특히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대표작 중 하나인 '베르탱고(자유의 탱고)' 연주로 탱고를 일약 클래식 레퍼토리 안으로 성큼 다가서게 만든 주인공이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도 탱고의 오늘이 있게 만든 트렌드 세터(Trend Setter)라고 할 수 있다. 요요마가 클래식 연주자의 탱고세계로의 문을 열어놓았다면 기돈 크레머는 그 열기가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붙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아졸라에의 헌정(Hommage a Piazzolla)』앨범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이 대단히 섬세하게 포착해낸 피아졸라의 '망각(Oblivion)'은 그 어떤 탱고 연주에서의 '망각' 연주보다 뛰어난 감각과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돈 크레머는 『탱고 발레』앨범을 통해서 피아졸라의 '탱고 발레' · '천사의 협주곡' ·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 개의 소품' 같은 문제작들을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천착 · 발표해 피아졸라의 높은 음악성과 이론적 무장을 클래식 음반계에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을 했다.

기돈 크레머의 작업 중 2000년에 발표한 비발디의 '사계'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접목시킨 『팔계(Eight Seasons)』앨범 발표는 무척 대담하고도 재미있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전세계 투어의 일

'일어서서 춤추는 음악'에서 '앉아서 듣는 감상용 음악'으로 탱고의 개념을 바꾸어 놓은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 전통에 파격을 준 것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탱고를 연주하지 않는 연주자는 마치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연주자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말이다. 실제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은 그가 타계한 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인 양 지평을 확장시켜가며 지구촌 곳곳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환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실내악단 카메라타 발티카와 이 『팔계』를 연주하기도 했던 기돈 크레머는 비발디의 '봄' 다음에 피아졸라의 '여름' 그리고 피아졸라의 '가을' 다음에 피아졸라의 '겨울', 끝으로 비발디의 '겨울' 다음에 피아졸라의 '봄'을 배치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북반구 이탈리아의 '사계'와 남반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교차시키고 있다. 또한 비발디의 '사계'에도 탱고적인 느낌을 곳곳에 접목시킨 흔적을 맛볼 수 있어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재생산, 연주되게끔 작업을 이끌어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갈 때면 난 항상 탱고 바에 들러서 훌륭한 탱고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난 피아졸라의 탱고야말로 특별한 무엇이 담겨 있는 음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에서 나는 매우 다양한 음악적 층위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의 음악은 탱고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폭넓은 음악적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실로 위대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아졸라의 작업을 일목요연하게 연주해낸 기돈 크레머의 업적 중 탱고 음반사에 있어 무척 중요한 앨범으로 꼽을 수 있는 작품은 피아졸라의 유일한 탱고 오페리타(Operita, 작은 오페라란 뜻의 스페인어)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이다. 이 작품은 탱고의 기원에 담긴 신화를 노래하는 작품인데, 홍등가의 여인 마리아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구원한다는 내용으로 코러스와 내레이터가 등장하는 등 탱고의 기원을 그리스신화적, 비극적으로 구성한 역작. '내 이름은 마리아(Yo soy Maria)' · '푸가와 미스테리(Fuga y mysterio)' 같은 명곡들이 들어있는 오페리타로서, 원작대본을 집필했으며 피아졸라와 함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공연을 치룬 내레이터 오라시오 페레르가 크레머와 의기투합, 창조적인 재현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기돈 크레머는 한번도 피아졸라를 만나지 않고도 피아졸라의 작품들을 일목요연하고도 집요하게 연주해낸 반면, 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살바토레 아카르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을 때 피아졸라의 연주장인 '미켈란젤로'를 방문했으며, 피아졸라 역시 아카르도의 '테아트로 콜론'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피아졸라는 아카르도의 공연장을 찾아 아카르도를 위해 '밀롱가 D장조'를 인터미션에 헌정했고, 아카르도는 그 보답으로 이 곡을 앙코르 연주하며 서로 특별한 인연을 맺기도 했다. 그 때가 1969년이었으니 피아졸라와 교류를 한 첫 클래식 연주자 중 한 명인 셈이다. 노장 아카르도는 2001~2002년에 걸쳐 뒤늦게 이탈리아 체임버 오케스트라(Orchestra da Camera Italiana)와 '르 그랑 탱고' 앨범을 발표하면서 클래식 연주자의 탱고 연주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탱고의 감칠 맛은 기돈 크레머의 작업보다 떨어지지만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교류했던 연주자였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노래 곡들은 성악가들이 잘 부르지 않는 데 비해서 탱고의 최초 '월드 스타'였던 싱어 송 라이터 카를로스 가르델의 곡은 아르헨티나 출신 성악가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스에 의해 리바이벌되어 레코딩되었고 알바레스는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공

연차 오기도 했다.

마르셀로 알바레스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코벤트 가든, 베로나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을 무대로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테너이다. 그는 피아졸라 곡들의 변박과 자유로운 선율미와 화성에 비해 원초적이고 단순한 4/4박자 8/4박자 등으로 똑떨어지는 강렬한 리듬의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El dia que me quieras)' · '머리 하나 차이로(Por una cabeza)' · '오솔길(Caminito)' · '라 쿰파르시타(La Cum parsita)' · '부에노스 아이레스 내 사랑(Mi Buenos Aires querido)' 등의 가르델의 탱고를 진한 에스프리로 소화해 내고 있다. 물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탱고에 이미 도전해서 앨범을 발표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오리지널 가르델의 탱고를, 세션은 반도네온 주자 네스토르 마르코니 등 명탱고 주자들로 구성하고, 노래는 알바레스가 성악창법으로 불러낸 이 앨범은 탱고의 아르헨티나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역작이라 할 수 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늘어

지금까지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탱고를 연주하고 레코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탱고 연주자들이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편곡하는 경우도 많다.

탱고 음반 가운데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가장 잘 어우러진 앨범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누에보 탱고 킨테토(Nuevo Tango Quinteto, New Tango Quintet)의 피아니스트였던 파블로 지글러가 베이스 주자 오라시오 후르타도, 반도네온의 발터 카스트로와 함께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탱고 로맨스』라고 할 수 있다.

직접 피아노 연주와 편곡 작업을 하고 있는 파블로 지글러는 피아졸라의 '고독', 부에노스 아이레스 모음곡 '망각' 뿐만 아니라 코비안의 '향수(Nostalgias)' · '시냇가의 연무(Niebla del Riachuelo),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바람의 밀롱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탱고 발라드를 모아 로맨틱 탱고의 권위자로서의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오케스트라를 아는 탁월한 편곡에서 연주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지글러는 내한공연에서 서울시향과 함께 이 곡들을 연주해 한국 청중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한편 탱고 곡 중에서 괄목할 만한 신작으로 나온 작품은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루이스 바칼로프의 〈미사 탱고〉이다. 정명훈이 지휘하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등이 노래했던 〈미사 탱고〉는 탱고곡으로 종교곡을 만들었다는 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결과는 '다분히 세속적 특질을 지닌 탱고'로도 충분히 미사어법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작곡자 루이스 바칼로프가 보여준 것으로 요약되는데, 작곡자 자신도 이 곡을 통해 경음악 작곡가에서 클래식 작곡가로 성공적인 변신과 영역 확장을 하게 되었다. 이 〈미사 탱고〉는 현재 유럽에서 여러 합창단에 의해서 절찬리에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 되었으며 앨범에서 반도네온을 담당했던 파사렐리 역시 〈미사 탱고〉 공연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탱고는 이제 화려한 제 2의 르네상스를 맞았다. 이제 아르헨티나만의 탱고가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모두 즐기는, 그리고 탱고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클래식을 하는 사람도 모두 즐겨 연주하는 레퍼토리가 되었다. 한때 아르헨티나에서 사라질뻔 했던 반도네온 연주는 지금 활황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립음악원에는 현재 반도네온 전공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료타 고마츠가 동양의 독보적인 반도네온 주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또 탱고의 인기는 북반구까지 덮어버려 핀란드인들은 자신들이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탱고가 강한 제 2의 탱고 국가라고 공언할 정도다.

탱고는 지금까지 클래식과 결합하면서 현재의 것보다는 가르델이나 피아졸라의 음악을 주요 레퍼토리로 삼아왔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되겠지만 탱고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미사 탱고〉 같은 곡이 다수 작곡되고 연주되어야 한다. 이에 작곡가 루이스 바칼로프는 탱

고에 새로운 희망을 던졌는데, 과연 누가 제 2의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될 것인가?

한편 재즈 뮤지션들에 의해서 먼저 차용된 브라질 음악 특히, 삼바는 '보사노바' 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무대와 레코딩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클래식 쪽에서 브라질 음악을 기웃거린 건 지난 2000년의 일이었다.

카메라타 브라질의 놀라운 앨범 『브라질의 바흐(Bach in Brazil)』 앨범은 이탈리아 협주곡, 2성 인벤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중 '알레그로', 모음곡 2번중 '바디네리', 건반악기를 위한 '지그와 파르티타', 작품 4 BWV 828 등 바흐의 곡을 브라질 전통 민속 대중음악인 쇼루 형태로 편곡하고 연주함으로써 브라질 음악과 재즈와의 접목에 도화선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바흐' 앨범은 6현 · 7현 기타, 카바키뇨, 비올라 카피라, 두 대의 만돌린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 바이올린 · 클라리넷 · 소프라노 색소폰에 이르기까지 쇼루를 구성하는 브라질 악기와 클래식 악기 및 재즈 악기까지 사용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이 행복하게 혼합되어 있는 브라질에 무척 잘 어울리는 음악을 바흐를 통해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카메라타 브라질』의 바흐 쇼루 앨범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움을 줌과 동시에 그 밑바탕에 철저한 이론적인 탐구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신뢰를 갖게 한 작업이었다.

한편 브라질 음악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인 클래식 음악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월드 뮤직으로 외도(?)를 하기 시작한 다니엘 바렌보임이다. 친구인 엠마뉴엘 액스 등과 함께 1996년 작 『친구들과의 탱고』로 주목을 끌더니, 곧이어 『브라질리언 랩소디(브라질 광시곡)』라는 앨범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유대계 러시아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난 바렌보임이기에 이러한 시도들은 여느 클래식 연주자들에 비해 상당히 자연스러웠다. 또한 바이올린의 니콜라이 즈나이더, 플루트의 엠마누엘 파유 등 음악 동료들은 감미롭게 클래식 사운드로 재현되는 브라질 대중 스탠더드 넘버를 맛보게 해 주었다.

가장 최근에 발매된 클래식의 브라질 음악 앨범은 요요마의 『오브라가도 브라질(obrigado Brazil)』 앨범이다. 자신의 지적 · 인문학적인 호기심을 상업적인 감각과 동시에 만족시켜가는 요요마가 삼바 · 보사노바 음악을 첼로 선율로 옮긴 것이 『고마워요 브라질』 앨범인 것이다.

보사노바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로사 파수스, 브라질 타악기의 명장 시로 밥티스타, 쿠바 출신 클라리넷 주자 파키토 드리베라 등 요요마는 역시 최고의 브라질 음악 연주자들과 작업을 했다. 특히 탱고 음악 편곡으로 유명한 호르헤 칼란드렐리가 첫 곡 '크리스탈' 부터 마지막 곡 '브라질 레이린뉴' 에 이르기까지 한 곡을 제외한 모든 곡을 감칠맛나게 편곡하여 듣는 재미를 배가시킨 점도 흥미롭다. 이 앨범의 백미는 로사 파수스가 부드럽고 고요하며 수수하게, 그리고 천사같이 불러내는 '슬픔이 찾아오다(Chega de Saudade)' 다. 아무런 욕심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깊은 슬픔에 잠긴 그녀의 목소리는 요요마의 첼로와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감흥을 선사하는 것이다.

결국 요요마의 오랜 음악 여행은 이번 브라질 여행에서도 자신의 족적을 뚜렷이 남기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브라질리언 랩소디』와 요요마의 『오브리가도 브라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클래식 음악과 브라질 음악과의 만남은 상당히 잦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먼저 이 분야를 제대로 공략할까에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